

저 미술아키비스트의 욕망에 감사하라

송추향 | 한사람연구소 소장

2007년 여름, 그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예술가들에게 그를 소개하려는 한 독립예술잡지의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그때도 그는 이미 오랫동안 미술기록을 모아 왔고, 그 기록을 다른 미술가가, 연구자가,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내놓고 있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25년, 다시 그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니, 아래로 더 깊어졌고 옆으로 더 넓어져 있었다. 그사이 모아 낸 미술 자료는 더 많아졌고, 나름의 기준으로 선정한 예술가들의 깊이 있는 특별 컬렉션까지 갖추고 있었다.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도 만들고, 박물관·미술관 1급 학예사 자격증도 땀다. 모은 기록들로 상설 전시와 유튜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공간과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술아카이브라는 세계의 문을 열고, 그곳을 미술 자료로 채워 온 사람, 가득 찬 공간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 그는 '미술아키비스트'이자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김달진'이다.

방대한 미술 자료 라키비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



1
걸어다니는
'미술아카이브스트'이자 '미술
인플루언서'인 김달진 관장

2
1970년대 김달진이 직접
수집한 미술 자료로 만든
〈서양미술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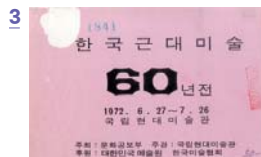
3
1972년 김달진이 관람하고
보관해 둔 〈한국 근대미술
60년전〉 티켓

4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던 시절의 김달진

5
1991년에도 김달진의
월계동 반지하집은 미술
자료로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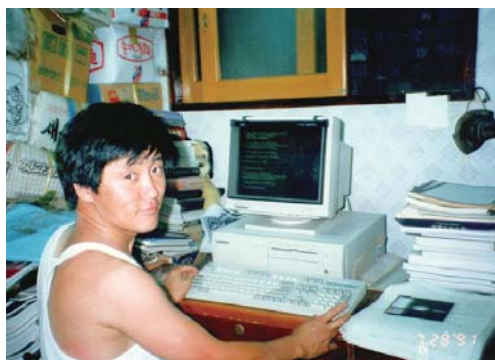
2



3



4



5



미술기록에 대한 집념이 미술아카이브가 되기까지

“줄아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나도 몰랐죠.”
말은 겸손하지만 김달진의 삶은 집요한 기록의 여정이
었다. 어릴 때부터 검상표, 담뱃갑, 우표 같은 것을 모
으는 데 열심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그 슬픔을 달래려 하나둘 모으던 것이 ‘수집광’
의 시작이었다. 잡지에서 세계의 명화들을 오려 모은
기록으로 10권짜리 〈서양미술전집〉을 만들 정도가 되
었다. 그러다 고3이던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근대미술 60년전〉 전시회를 다녀온 후 김
달진의 수집 행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때 깨달았죠. 서양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몰랐던 좋은 작가들이 정말 많다는 것ですよ. 그런데 자
료가 없더라고요. 그게 출발이었어요.”

그렇게 한국미술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절감한 김달진
은 도록을 손에 넣기 위해 헌책방을 헤매며 한 권 한 권
찾아냈고, 점점 몰입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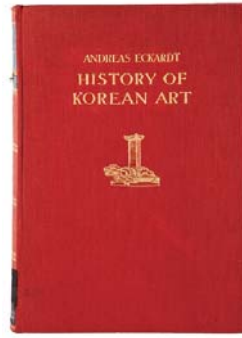
방대한 미술 자료와 큰 병, 수집가의 이중생활

사실 기록은 애정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기록 수집
이 폐지 줍는 일과 다르지 않게 여겨지던 시절이었기
에 ‘생계용’ 일을 해야 했다. 김달진은 먹고살기 위해
버스 회사 사무원부터 화물차 주유 업무, 닭 튀기는 일,
막노동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그러다 이경성 관장과의 인연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서 자료 정리와 전산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자료 수집
과 분석에서 두각을 보였다. 미술관으로 ‘알아서’ 들어
오지 않는 더 많은 미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주일
에 하루는 가방을 메고 화랑들을 돌아다녔다. 차도 없
이 가방 가득 미술 자료를 모으고 다니는 김달진에게
‘걸어다니는 아카이비스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무거운
가방을 하도 오래 메고 다녀 큰 병을 얻기도 했다.

“목척추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했어요. 그때는 죽는 줄
알았지. 6시간이나 수술대에 있었으니까. 그 뒤로도 목
어깨수술을 세 번 더 했어요. 의사가 앞으로는 무거운
거 절대 그만 메라고 했는데, 또 좋은 자료를 만나면 조
절이 안 되고 욕심이 발동되더라고요.”

우직하게 평생을 ‘모으는 시간’으로 보낸 김달진은 지
금 한국에서 가장 방대한 민간 미술아카이브를 운영하
는 인물이 됐다. 현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 소장된
미술 자료의 양과 종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전시
관련 팸플릿, 도록, 작가 및 미술 단체 관련 신문과 잡



지 기사 스크랩북, 서신, 작품, 서적, 기록물 등 미술계에서 파생되는 거의 모든 부산물들을 아우르고 있다.

미술 자료를 담고 나누는 그릇들

그런데 김달진은 그 고생을 하며 모은 것들을 사유화하는 대신 나누고 싶었다. 아니 나누어야 한다고 믿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창 일을 그만두고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개관하고, 미술 전시 정보나 간행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기간행물 「서울아트가이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550여 곳에 배포되고 있는 「서울아트가이드」는 미술계를 대표하는 정보지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그는 또 한 걸음을 나아간다. '김달진미술자료 박물관'을 연 것이다. 이곳은 그동안 모아 온 미술 자료를 보존, 서비스하는 기록관에 박물관 기능까지 통합된 '라키비움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뜻하는 영어 Library, Archives, Museum을 합친 말. 각 기관들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기관'의 실천 공간이었다.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미술 정보 포털 달진닷컴 daljin.com을 만들어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풍성한 자료를 축적해 가는 동시에 「서울아트가이드」 지면에서 다룰 수 없는 심도 있는 이야기, 소장자료 검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를 만들었고, 2015년에는 지금의 홍지동으로 박물관을 옮겨 왔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다. 지하층은 수장고, 1층은 전시장, 2층은 미술정보센터와 관장실, 3층은 「서울아트가이드」 편집실과 학예실로 쓴다. 국공립·사립 미술관 등에서 각종 기획전을 개최할 때 이곳의 실물 자료를 대여해 가는 일은 자연스럽다.

1층 전시장에서 2023년 열린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 기념 〈한국독일미술교류사〉 전시는 한국과 독일의 문화 교류 현장을 서신, 작품, 책, 기록물 등으로 보여주며 심도 있는 미술사적 가치를 알렸다. 이밖에도 〈한국 미술 단체 100년〉, 〈한국 공모전의 역사〉, 〈한국 평론의 역사〉, 〈한국 미술전시 공간의 역사〉 등 학술적 가치와 대중적 흥미를 겸비한 전시를 꾸준히 선보였다. 소외되거나 잊힌 작가들까지 아카이브해 한국 미술의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노력했다. 게다가 2018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대중에게 미술 현장의 생생한 소식도 전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는 3,000여 건에 달하는 동영상도 업로드되어 있다. 덕분에 '걸어다니는 미술아카이비스트'라는 정체성 위에 '걸어다니는 미술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동영상 한 편 한 편의 완성도에서는 아쉬움이 많아요. 하지만 아무도 기록해 두지 않는 것보다는 발 빠르게, 시의적절하게 전시 정보를 현행화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D폴더: 한 사람을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작업들

김달진이 모아 온 미술 자료 중에서도 가장 큰 집념과

6
2013년 도덕교과서에 새롭게 등재된 직업, '미술아카이비스트'로 김달진 관장이 소개되고 있다.

7
2015년 김달진박물관 사육 개관식 모습

8
서화협회회보 (창간호 1921) 표지

9
「HISTORY OF KOREAN ART」 표지

10
「김달진, 한국 미술 아카이비스트」, 김재희, 벚나래, 2024

11
요즘도 김달진 관장은 날마다 14종의 신문을 스크랩하며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한다.

시간과 공을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은 'D폴더'다. D폴더는 그가 50년 넘게 수집해 온 자료를 한국 근현대 작가 별로 축적하고 있는 아카이브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의미하는 'Daljin달진'의 'D'와 'Document자료 혹은 기록'의 'D'를 합해 지어진 이름이다. 개별 작가에 대한 작품부터 신문·잡지 기사, 전시 팸플릿, 입장권, 포스터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정리한다. 그렇게 작업한 작가가 지금까지 335명에 이른다.

"D폴더는 지금도 진행 중인 아카이브입니다. 날마다 14종의 신문을 스크랩하며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현재도 아카이브하는 살아 있는 폴더입니다. 방대한 자료가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자원으로 이용될 때 보람을 느끼죠."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는 또 특별한 인연과 사연이 새겨진 소장기록도 그득하다.

"1954년 이경성 관장님이 당신의 '문화인증서'를 주셨어요. 문교부 시절, 장관이 예술인에게 발급한 중요한 역사적 자료죠. 제게는 이 관장님과 깊은 인연을 기념하는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잡지 <신천지> 1948년 8월호도 귀한 소장기록물이에요. 한국 미술사학계에 중요한 인물인 고유섭 선생의 글이 실려 있고,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거든요. 1974년 현대화랑에서 열린 <천경자 아프리카 풍물화전> 홍보를 위해 만든 작은 성냥갑도 갖고 있어요. 희귀하고 특별한 자료죠. 하나같이 수집의 부딪힘을 느끼게 해주는 기록물들입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의 기록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 흩어진 미술 자료를 모조리 모으겠다는 욕망,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길을 가능해 본다. 큰 가방에 자료를 잔뜩 짊어지고 두 발로 걷는 일, 급기야 목과 척추와 어깨를 망가뜨리는 일. 그리고 성실히 모으수록 부족한 공간의 문제와 관리할 품의 문제가 늘어나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일! 그 양과 질, 계획과 성과가 대단할수록 그의 고단함이 저릿하게 전해졌다.

"어려워도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하려고요.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가 된다고 믿으니까요."

2013년 그의 일은 중학교 교과서 직업사전에 '미술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을 새겨넣었다. 그리고 약 10년 후인 2023년 1월 9일,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박물관,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발전유공정부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아키비스트로서 그가 걸어온 길을 좇는 취재기 형식의 일대기 <김달진 한국 미술 아카이브>가 발간됐다. 어린 시절부터 차곡 차곡 이어온 그의 '모으는 시간'이 짙은 산그림자를 닮아가고 있다.

